GO
국가정보기구
안기부/국정원

안기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1997년 2월,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한 국 인 권 단 체 협 의 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정치부
발 신 :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김승훈신부
제 목 : 안기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도 의뢰의 건
발신일 : 1997년 2월 24일
(총 28매)

1.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金勝勳, 인권협)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로하여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2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해 12월 26일 날치기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지난달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재개정하기로 되었지만,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마저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보관련 사건들은 안기부법의 재개정 논의마저 막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기부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안기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정부와 여당이 겸허히 수렴하여 개악된 안기부법을 재개정하기를 바랍니다.

1. 보도자료
2. 설문조사 내용 첨부

1997년 2월 24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타)

보도자료

1.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金勝勳 신부)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여론 조사를 2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했다.
2. 이 여론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703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 방법으로 시행했으며, 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모집단을 선정하였고, 표본의 오차는 96%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이다.
3. 여론조사 항목은 7개의 대항목과 3개의 소항목 등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국민들의 안기부법과 노동법 재개정 약속에 대한 인지도는 80.4%로 나타났다. 반면 모르고 있는 층은 19.6%로 소수에 불과하다. 안기부법 노동법 재개정 약속 인지도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알고있다는 층은 성별로는 남자(89.2%)가 여자(71.8%)보다, 연령별로는 40대(89.5%), 30대(83.6%),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67.1%, 고졸:80.7%, 전문대졸:84.3%, 대졸이상:87.6%),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96.1%), 공무원(87.1%), 학생(86.0%) 층에서 많았다.

1-1) 국민들의 안기부법 재개정 필요성에 대해 61.6%가 재개정 되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정부여당의 개정불필요에 대해서는 18.4%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부법 재개정필요성을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재개정 되야 한다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67.4%)가 여자(55.9%)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70.8%, 30대:68.2%, 40대:54.4%, 50대이상:50.2%), 학력별로는 고졸이상(고졸:63.9%, 전문대졸:72.9%, 대졸이상:68.7%), 직업별로는 학생(80.0%), 사무/전문직(74.1%)에서 많았다. 재개정 약속인지별로는 알고있다는 층(65.9%)이 모르고 있다는 층(43.9%)보다 많았다.

2) 국민들은 개혁차원에서 안기부법을 개정했던 것에 대해 42.6%만이 알고 있다. 반면 과반수(57.4%)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혁차원에서 안기부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알고 있다는 층은 성별로는 남자(52.1%)가 여자(33.4%)보다, 연령별로는 40대(49.6%), 학력별로는 대졸이상(49.1%) 층에서 많았다.

2-1) 국민들은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2.8%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하는 의견은 23.0%로 소수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는 의견도 24.2%로 많았다. 안기부 수사권 이양 문제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안기부로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59.7%)가 여자(46.1%)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62.4%, 30대:58.4%, 40대:49.1%, 50대이상:39.7%), 학력별로는 대졸이상(63.0%),직업별로는 학생(69.1%), 서비스업(65.1%), 사무/전문직(60.3%)층에서 많았다.

3) 국민들은 안기부가 국민(14.1%)보다는 여당이나 정부(72.8%)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기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여당이나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84.5%, 30대:81.2%, 40대:68.7%, 50대이상:54.9%), 학력별로는 고졸이상(고졸:77.1%, 전문대졸:83.8%, 대졸이상:77.9%), 직업별로는 학생(89.9%), 서비스업(89.1%), 사무/전문직(77.1%) 층에서 많았다.

4)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안기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52.3%가 동의(전적으로 동의:20.9%+대체로 동의:31.5%)하는 반면, 32.6%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혀 동의않음:9.7%+전혀 동의않음:22.9%). 안기부의 인권침에 대한 동의여부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동의(전적 동의 + 대체로 동의)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57.0%)가 여

자(47.8%)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65.2%, 30대:63.3%, 40대:46.7%, 50대이상:31.5%), 학력별로는 고학력(전문대졸:65.3%, 대졸이상:65.0%), 직업별로는 학생(77.3%), 사무/전문직(67.4%) 층에서 많았다.

5)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날치기와 한보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안기부를 통해 서둘러 터뜨렸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54.0%가 동의(전적으로 동의: 21.8%+대체로 동의:32.3%)한 반면 32.2%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혀 동의 않음: 10.9%+전혀 동의않음:21.3%). 안기부의 황장엽 망명사건 배후설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동의(전적 동의 + 대체로 동의)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64.6%, 30대:60.9%, 40대:48.5%, 50대이상:39.9%),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30.8%, 고졸:57.2%, 전문대졸:60.6%, 대졸이상:63.5%), 직업별로는 서비스업(67.3%), 사무/전문직(65.6%), 지역별로는 서울(61.1%), 호남(58.6%)지역에서 많았다.

6) 국민들은 안기부의 개혁필요성에 대해 74.2%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43.8%+다소 필요하다:30.4%)고 보는 반면 14.6%는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다:9.5%+전혀 필요하지 않다:5.1%)고 보고 있다. 안기부 개혁 필요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는 평가는 성별로는 남자(77.0%)가 여자(71.4%)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88.1%, 30대:82.1%, 40대:69.5%, 50대이상:54.7%), 학력별로는 고졸이상(고졸:81.1%, 전문대졸:85.5%, 대졸이상:82.3%), 직업별로는 학생(93.1%), 서비스업(83.6%), 사무/전문직(83.0%)에서 많았다.

6-1) 안기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은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권으로부터 분리독립(46.4%)을 가장 많이 들고 다음은 정보권과 수사권 분리(20.2%), 예산과 업무의 공개(17.3%), 권한의 축소(12.0%) 순으로 들고 있다. 안기부의 개혁영역을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정권으로부터 분리독립을 든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49.9%)가 여자(42.6%)보다, 연령별로는 20대(51.7%), 학력별로는 대졸이상(52.9%), 지역별로는 학생(52.6%), 사무/전문직(51.6%), 지역별로는 호남(60.6%) 지역에서 많았다.

7) 국민들은 안기부라 할 때 드는 느낌으로 61.0%가 두려운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근한 느낌이 든다는 층은 3.3%에 불과하며,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층은 31.8%로 나타났다. 안기부에 대한 느낌을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두렵다는 층은 성별로는 여자(66.2%)가 남자(55.7%)보다, 연령별로는 30대(70.2%), 학력별로는 고졸(67.7%), 직업별로는 주부(69.8%), 서비스업(65.2%), 학생(63.8%), 공무원(61.8%), 지역별로는 서울(67.4%) 지역에서 많았다.

4.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은 안기부를 두려운 존재로 느끼고 있으며, 그간 안기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주범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에 개악된 안기부법의 재개정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의 안보관련 사건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개악된 안기부법의 재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것과는 반대로 재개정에 대해서도 광범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나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일수록 더욱 이런 경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5.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이런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렴하여 개악된 안기부법의 개악과 더불어 안기부의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인권협의 제단체들은 안기부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투쟁을 지지하며, 범대위가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벌이는 항의집회에 저극 결합하는 등 안기부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목 차

제 1 부 조사의 개요

제 2 부 조사결과의 분석

제 3 부 통계 분석표

부 록 설 문 지

제 1 부 조사의 개요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Ⅱ. 조사 내용

1. 안기부법 재개정 방침에 대한 인지도
1-1. 안기부법 재개정필요성에 대한 찬반
2. 안기부법 개혁에 대한 인지도
2-2. 안기부 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한 찬반
3. 집권여당과 국민중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4. 김영삼 정부하에서 안기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침해 여부
5. 안기부의 황장엽 사건개입의혹에 대한 동의여부
6. 안기부의 개혁필요성
6-1. 개혁이 필요한 분야
7. 안기부에 대한 느낌

Ⅲ. 조사설계(Research Design)

1. 표본설계(Sample Design)

차 원	내 용
(1) 모 집 단	1997년 2월 현재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2) 조 사 기 간	97. 2. 22 - 2. 23
(3) 표 본 크 기	703명
(4)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5)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질문지
(6)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7%

Ⅳ.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 료 처 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 분 석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u>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u>

① 성
② 연령
③ 학력
④ 직업
⑤ 지역

V. 표본의 특성

	사례수	백분율
■ 전 체	703	100.0%
□ 성 별		
남 자	347	49.4%
여 자	356	50.6%
□ 연 령 별		
20 대	193	27.5%
30 대	193	27.5%
40 대	132	18.8%
50 대 이 상	185	26.3%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20.5%
고 졸	286	40.7%
전 문 대 졸	50	7.1%
대 졸 이 상	223	31.8%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6.7%
자영업/ 사업	71	10.2%
생산 / 기술	78	11.2%
사무/ 전문직	93	13.2%
공 무 원	37	5.3%
학 생	65	9.3%
주 부	196	27.9%
서 비 스 업	53	7.5%
무직 / 기타	61	8.7%
□ 광 역 별		
서 울	164	23.3%
부산/경남 권	120	17.1%
대구/경북 권	82	11.7%
인천/경기 권	154	21.9%
호 남 권	82	11.7%
충 청 권	70	10.0%
강 원 도	23	3.3%
제 주 도	8	1.1%

제 2부. 조사결과의 분석

1. 안기부법/노동법 재개정 방침에 대한 인지도

문1) 지난 해 12월 신한국당에 의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새벽에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야당과 노동계 등 각계가 반대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총재와 안기부법과 노동법에 대한 재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80.4%
② 모르고 있다	19.6%
(N = 703 명)	100.0%

■ 국민들의 안기부법과 노동법 재개정 약속에 대한 인지도는 80.4%로 나타났다.
반면 모르고 있는 층은 19.6%로 소수에 불과하다.

□ 안기부법 노동법 재개정 약속 인지도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알고있다는 층은
성별로는 남자(89.2%)가 여자(71.8%)보다,
연령별로는 40대(89.5%), 30대(83.6%),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67.1%, 고졸:80.7%, 전문대졸:84.3%, 대졸이상:87.6%),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96.1%), 공무원(87.1%), 학생(86.0%) 층에서 많았다.

1-1. 안기부법 재개정필요성에 대한 찬반

문1-1) 최근에 신한국당은 북한 황장엽 비서의 망명과 이한영씨 피격사건을 들어 안기부법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안기부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개정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개정 되어야 한다	61.6%
② 재개정 할 필요가 없다	18.4%
③ 잘 모르겠다	20.0%
(N = 703 명)	100.0%

■ 국민들의 안기부법 재개정 필요성에 대해 61.6%가 재개정 되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정부 여당의 개정불필요에 대해서는 18.4%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기부법 재개정필요성을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재개정 되야 한다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67.4%)가 여자(55.9%)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70.8%, 30대:68.2%, 40대:54.4%, 50대이상:50.2%),
학력별로는 고졸이상(고졸:63.9%, 전문대졸:72.9%, 대졸이상:68.7%),
직업별로는 학생(80.0%), 사무/전문직(74.1%)에서 많았다.

재개정 약속인지별로는 알고있다는 층(65.9%)이 모르고 있다는 층(43.9%)보다 많았다.

2. 안기부법 개혁에 대한 인지도

문2)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안기부 개혁차원에서 안기부법 7조 고무/찬양죄와 10조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42.6%
② 모르고 있다	57.4%
(N = 703 명)	100.0%

■ 국민들은 개혁차원에서 안기부법을 개정했던 것에 대해 42.6%만이 알고 있다. 반면 과반수(57.4%)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 개혁차원에서 안기부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알고 있다는 층은
성별로는 남자(52.1%)가 여자(33.4%)보다,
연령별로는 40대(49.6%),
학력별로는 대졸이상(49.1%) 층에서 많았다.

2-2. 안기부 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한 찬반

문2-1) 그런데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러한 수사권을 다시 안기부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며 안기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귀하는 수사권을 안기부에 다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검찰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사권을 안기부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52.8%
② 수사권을 안기부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23.0%
③ 잘 모르겠다	24.2%
(N = 703 명)	100.0%

■ 국민들은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2.8%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하는 의견은 23.0%로 소수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는 의견도 24.2%로 많았다.

□ 안기부 수사권 이양 문제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안기부로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59.7%)가 여자(46.1%)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62.4%, 30대:58.4%, 40대:49.1%, 50대이상:39.7%),
학력별로는 대졸이상(63.0%),
직업별로는 학생(69.1%), 서비스업(65.1%), 사무/전문직(60.3%)층에서 많았다.

안기부법 개혁입법 인지별로는 알고있다는 층(57.7%)이 모르고 있다는 층(49.2%)보다 많았다.

3. 집권여당과 국민중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문3) 귀하는 안기부가 집권여당이나 정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당이나 정부	72.8%
② 국 민	14.1%
③ 잘 모르겠다	13.1%
(N = 703 명)	100.0%

■ 국민들은 안기부가 국민(14.1%)보다는 여당이나 정부(72.8%)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 안기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여당이나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84.5%, 30대:81.2%, 40대:68.7%, 50대이상:54.9%),
학력별로는 고졸이상(고졸:77.1%, 전문대졸:83.8%, 대졸이상:77.9%),
직업별로는 학생(89.9%), 서비스업(89.1%), 사무/전문직(77.1%) 층에서 많았다.

4. 김영삼 정부하에서 안기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침해 여부

문4)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안기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끼?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20.9%
② 대체로 동의한다	31.5%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2.9%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7%
⑤ 잘 모르겠다	15.1%
(N = 703 명)	100.0%

■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안기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52.3%가 동의(전적으로 동의:20.9%+대체로 동의:31.5%)하는 반면, 32.6%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혀 동의않음:9.7%+전혀 동의않음:22.9%).

□ 안기부의 인권침에 대한 동의여부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동의(전적 동의 + 대체로 동의)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57.0%)가 여자(47.8%)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65.2%, 30대:63.3%, 40대:46.7%, 50대이상:31.5%),
학력별로는 고학력(전문대졸:65.3%, 대졸이상:65.0%),
직업별로는 학생(77.3%), 사무/전문직(67.4%) 층에서 많았다.

5. 안기부의 황장엽 사건개입의혹에 대한 동의여부

문5) 황장엽 망명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그리고 한보사태로 야기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안기부를 통해 황장엽 망명사건을 서둘러 터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21.8%
② 대체로 동의한다	32.3%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1.3%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9%
⑤ 잘 모르겠다	13.7%
(N = 703 명)	100.0%

■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날치기와 한보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안기부를 통해 서둘러 터뜨렸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54.0%가 동의(전적으로 동의: 21.8%+대체로 동의:32.3%)한 반면 32.2%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혀 동의 않음 :10.9%+전혀 동의않음:21.3%).

□ 안기부의 황장엽 망명사건 배후설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동의(전적 동의 + 대체로 동의)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64.6%, 30대:60.9%, 40대:48.5%, 50대이상:39.9%),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30.8%, 고졸:57.2%, 전문대졸:60.6%, 대졸이상:63.5%),
직업별로는 서비스업(67.3%), 사무/전문직(65.6%),
지역별로는 서울(61.1%), 호남(58.6%)지역에서 많았다 ,

6. 안기부의 개혁필요성

문6) 귀하는 이러한 안기부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43.8%
② 다소 필요하다	30.4%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9.5%
④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	5.1%
⑤ 잘 모르겠다	11.2%
(N = 703 명)	100.0%

■ 국민들은 안기부의 개혁필요성에 대해 74.2%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43.8%+다소 필요하다:30.4%)고 보는 반면 14.6%는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다:9.5%+전혀 필요하지 않다:5.1%)고 보고 있다.

□ 안기부 개혁 필요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는 평가는
성별로는 남자(77.0%)가 여자(71.4%)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88.1%, 30대:82.1%, 40대:69.5%, 50대이상:54.7%),
학력별로는 고졸이상(고졸:81.1%, 전문대졸:85.5%, 대졸이상:82.3%),
직업별로는 학생(93.1%), 서비스업(83.6%), 사무/전문직(83.0%)에서 많았다.

6-1. 개혁이 필요한 분야

문6-1)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산과 업무의 공개	17.3%
② 정보권과 수사권 분리	20.2%
③ 권한의 축소	12.0%
④ 정권으로부터 분리독립	46.4%
⑥ 잘 모르겠다	4.2%
(N = 521 명)	중복응답

■ 안기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은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권으로부터 분리독립(46.4%)을 가장 많이 들고 다음은 정보권과 수사권 분리(20.2%), 예산과 업무의 공개(17.3%), 권한의 축소(12.0%) 순으로 들고 있다.

□ 안기부의 개혁영역을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정권으로부터 분리독립을 든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49.9%)가 여자(42.6%)보다,
연령별로는 20대(51.7%),
학력별로는 대졸이상(52.9%),
지역별로는 학생(52.6%), 사무/전문직(51.6%),
지역별로는 호남(60.6%) 지역에서 많았다.

7. 안기부에 대한 느낌

문7) 귀하는 안기부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① 친근한 느낌이 든다	3.3%
② 두려운 느낌이 든다	61.0%
③ 특별한 느낌이 없다	31.8%
④ 잘 모르겠다	3.9%
(N = 703 명)	100.0%

■ 국민들은 안기부라 할 때 드는 느낌으로 61.0%가 두려운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근한 느낌이 든다는 층은 3.3%에 불과하며,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층은 31.8%로 나타났다.

□ 안기부에 대한 느낌을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두렵다는 층은
성별로는 여자(66.2%)가 남자(55.7%)보다,
연령별로는 30대(70.2%),
학력별로는 고졸(67.7%),
. 직업별로는 주부(69.8%), 서비스업(65.2%), 학생(63.8%), 공무원(61.8%),
지역별로는 서울(67.4%) 지역에서 많았다 ,

응답자 특성

	구 성	
	사례수	%
■전 체	703	100.0%
□ 성 별		
남 자	347	49.4%
여 자	356	50.6%
□ 연 령 별		
20 대	193	27.5%
30 대	193	27.5%
40 대	132	18.8%
50 대 이 상	185	26.3%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20.5%
고 졸	286	40.7%
전 문 대 졸	50	7.1%
대 졸 이 상	223	31.8%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6.7%
자영업/ 사업	71	10.2%
생산 / 기술	78	11.2%
사무/ 전문직	93	13.2%
공 무 원	37	5.3%
학 생	65	9.3%
주 부	196	27.9%
서 비 스 업	53	7.5%
무직 / 기타	61	8.7%
□ 광 역 별		
서 울	164	23.3%
부산/경남 권	120	17.1%
대구/경북 권	82	11.7%
인천/경기 권	154	21.9%
호 남 권	82	11.7%
충 청 권	70	10.0%
강 원 도	23	3.3%
제 주 도	8	1.1%

문1)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에 의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새벽에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야당과 노동계등 각계가 반대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총재와 안기부법과 노동법에 대한 재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례수	Y1		전 체
		①알고있다	②모르고 있다	%
		%	%	
■ 전 체	(703)	80.4	19.6	100.0
□ 성 별				
남 자	(347)	89.2	10.8	100.0
여 자	(356)	71.8	28.2	100.0
□ 연 령 별				
20 대	(193)	76.0	24.0	100.0
30 대	(193)	83.6	16.4	100.0
40 대	(132)	89.5	10.5	100.0
50 대 이 상	(185)	74.9	25.1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67.1	32.9	100.0
고 졸	(286)	80.7	19.3	100.0
전 문 대 졸	(50)	84.3	15.7	100.0
대 졸 이 상	(223)	87.6	12.4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63.1	36.9	100.0
자영업/ 사업	(71)	96.1	3.9	100.0
생산 / 기술	(78)	79.7	20.3	100.0
사무/ 전문직	(93)	84.8	15.2	100.0
공 무 원	(37)	87.1	12.9	100.0
학 생	(65)	86.0	14.0	100.0
주 부	(196)	75.5	24.5	100.0
서 비 스 업	(53)	78.4	21.6	100.0
무직 / 기타	(61)	76.4	23.6	100.0
□ 광 역 별				
서 울	(164)	83.7	16.3	100.0
부산/경남 권	(120)	79.9	20.1	100.0
대구/경북 권	(82)	81.7	18.3	100.0
인천/경기 권	(154)	79.6	20.4	100.0
호 남 권	(82)	82.0	18.0	100.0
충 청 권	(70)	72.2	27.8	100.0
강 원 도	(23)	84.8	15.2	100.0
제 주 도	(8)	62.5	37.5	100.0

문1-1) 최근에 신한국당은 북한 황장엽 비서의 망명과 이한영씨 피격 사건을 들어 안기부법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안기부법이 재개정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개정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Y1R1			전 체
		①개정되야 한다	②재개정할 필요가 없다	③잘 모르겠다	%
		%	%	%	
■ 전 체	(703)	61.6	18.4	20.0	100.0
□ 성 별					
남 자	(347)	67.4	22.8	9.8	100.0
여 자	(356)	55.9	14.2	29.9	100.0
□ 연 령 별					
20 대	(193)	70.8	16.5	12.7	100.0
30 대	(193)	68.2	16.3	15.5	100.0
40 대	(132)	54.4	21.2	24.4	100.0
50 대 이 상	(185)	50.2	20.7	29.1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42.2	16.2	41.6	100.0
고 졸	(286)	63.9	19.8	16.2	100.0
전 문 대 졸	(50)	72.9	21.5	5.5	100.0
대 졸 이 상	(223)	68.7	17.4	13.9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52.4	8.3	39.3	100.0
자영업/ 사업	(71)	59.7	30.8	9.5	100.0
생산 / 기술	(78)	64.3	15.9	19.8	100.0
사무/ 전문직	(93)	74.1	14.7	11.2	100.0
공 무 원	(37)	63.7	25.5	10.8	100.0
학 생	(65)	80.0	14.0	5.9	100.0
주 부	(196)	52.6	16.5	30.9	100.0
서 비 스 업	(53)	62.7	23.1	14.1	100.0
무직 / 기타	(61)	55.1	23.5	21.4	100.0
□ 광 역 별					
서 울	(164)	68.2	20.3	11.5	100.0
부산/경남 권	(120)	57.7	16.8	25.5	100.0
대구/경북 권	(82)	58.8	20.5	20.7	100.0
인천/경기 권	(154)	54.1	23.2	22.7	100.0
호 남 권	(82)	65.8	15.5	18.7	100.0
충 청 권	(70)	67.9	10.3	21.8	100.0
강 원 도	(23)	65.2	6.5	28.3	100.0
제 주 도	(8)	50.0	25.0	25.0	100.0
□ 약속인지 별					
알 고 있 다	(565)	65.9	21.2	12.9	100.0
모르고 있다	(138)	43.9	7.3	48.8	100.0

문2)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안기부 개혁차원에서 안기부법 제7조 고무찬양죄와 10조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례수	Y2		전 체
		①알거있다	②모르고 있다	%
		%	%	
■ 전 체	(703)	42.6	57.4	100.0
□ 성 별				
남 자	(347)	52.1	47.9	100.0
여 자	(356)	33.4	66.6	100.0
□ 연 령 별				
20 대	(193)	34.3	65.7	100.0
30 대	(193)	43.7	56.3	100.0
40 대	(132)	49.6	50.4	100.0
50 대 이 상	(185)	45.2	54.8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37.1	62.9	100.0
고 졸	(286)	42.5	57.5	100.0
전 문 대 졸	(50)	30.5	69.5	100.0
대 졸 이 상	(223)	49.1	50.9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38.0	62.0	100.0
자영업/ 사업	(71)	61.7	38.3	100.0
생산 / 기술	(78)	46.6	53.4	100.0
사무/ 전문직	(93)	50.4	49.6	100.0
공 무 원	(37)	48.6	51.4	100.0
학 생	(65)	34.3	65.7	100.0
주 부	(196)	32.5	67.5	100.0
서 비 스 업	(53)	49.7	50.3	100.0
무직 / 기타	(61)	37.9	62.1	100.0
□ 광 역 별				
서 울	(164)	43.4	56.6	100.0
부산/경남 권	(120)	34.9	65.1	100.0
대구/경북 권	(82)	38.8	61.2	100.0
인천/경기 권	(154)	50.4	49.6	100.0
호 남 권	(82)	45.4	54.6	100.0
충 청 권	(70)	35.3	64.7	100.0
강 원 도	(23)	44.9	55.1	100.0
제 주 도	(8)	62.5	37.5	100.0

문2-1) 그런데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러한 수사권을 다시 안기부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며 안기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귀하는 수사권을 안기부에 다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검찰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Y2R1			전 체
		①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	②수사권을 안기부에 다시 넘겨 주어야한다	③잘 모르겠다	%
		%	%	%	
■ 전 체	(703)	52.8	23.0	24.2	100.0
□ 성 별					
남 자	(347)	59.7	22.8	17.4	100.0
여 자	(356)	46.1	23.1	30.8	100.0
□ 연 령 별					
20 대	(193)	62.4	16.5	21.1	100.0
30 대	(193)	58.4	21.4	20.2	100.0
40 대	(132)	49.1	24.9	26.0	100.0
50 대 이 상	(185)	39.7	30.0	30.3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31.5	27.1	41.4	100.0
고 졸	(286)	55.4	23.4	21.3	100.0
전 문 대 졸	(50)	54.1	26.3	19.6	100.0
대 졸 이 상	(223)	63.0	19.1	17.9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32.6	16.1	51.3	100.0
자영업/ 사업	(71)	49.4	35.4	15.1	100.0
생산 / 기술	(78)	59.9	18.4	21.7	100.0
사무/ 전문직	(93)	60.3	21.0	18.7	100.0
공 무 원	(37)	58.4	22.8	18.8	100.0
학 생	(65)	69.1	19.5	11.4	100.0
주 부	(196)	44.4	26.2	29.3	100.0
서 비 스 업	(53)	65.1	19.0	15.9	100.0
무직 / 기타	(61)	48.3	19.9	31.8	100.0
□ 광 역 별					
서 울	(164)	59.1	23.2	17.7	100.0
부산/경남 권	(120)	39.9	26.7	33.3	100.0
대구/경북 권	(82)	48.3	30.3	21.4	100.0
인천/경기 권	(154)	52.0	19.4	28.6	100.0
호 남 권	(82)	68.8	11.2	20.0	100.0
충 청 권	(70)	49.1	25.6	25.3	100.0
강 원 도	(23)	53.3	32.6	14.1	100.0
제 주 도	(8)	50.0	25.0	25.0	100.0
□ 개혁인지 별					
알 고 있 다	(300)	57.7	32.7	9.6	100.0
모르고 있다	(403)	49.2	15.8	35.0	100.0

문3) 귀하는 안기부가 집권여당이나 정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Y3			전 체
		①여당이나 정부	②국민	③잘 모르겠다	%
		%	%	%	
■ 전 체	(703)	72.8	14.1	13.1	100.0
□ 성 별					
남 자	(347)	72.2	15.8	12.0	100.0
여 자	(356)	73.5	12.5	14.1	100.0
□ 연 령 별					
20 대	(193)	84.5	9.4	6.1	100.0
30 대	(193)	81.2	8.1	10.7	100.0
40 대	(132)	68.7	17.9	13.4	100.0
50 대 이 상	(185)	54.9	22.5	22.5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52.7	21.0	26.4	100.0
고 졸	(286)	77.1	16.1	6.8	100.0
전 문 대 졸	(50)	83.8	4.9	11.3	100.0
대 졸 이 상	(223)	77.9	9.2	12.9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43.9	28.9	27.2	100.0
자영업/ 사업	(71)	63.7	24.2	12.1	100.0
생산 / 기술	(78)	74.0	15.5	10.5	100.0
사무/ 전문직	(93)	79.7	12.7	7.6	100.0
공 무 원	(37)	63.1	12.4	24.5	100.0
학 생	(65)	89.9	3.9	6.2	100.0
주 부	(196)	75.0	10.3	14.7	100.0
서 비 스 업	(53)	89.1	7.5	3.3	100.0
무직 / 기타	(61)	60.5	21.0	18.5	100.0
□ 광 역 별					
서 울	(164)	74.7	14.3	11.0	100.0
부산/경남 권	(120)	74.1	14.1	11.7	100.0
대구/경북 권	(82)	68.3	21.5	10.1	100.0
인천/경기 권	(154)	72.3	10.9	16.7	100.0
호 남 권	(82)	79.2	10.8	10.0	100.0
충 청 권	(70)	69.7	12.6	17.8	100.0
강 원 도	(23)	67.4	23.9	8.7	100.0
제 주 도	(8)	50.0	12.5	37.5	100.0

문4)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안기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전적으로 동의한다	②대체로 동의한다	①+②	③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⑤잘 모르겠다	전 체
		%	%	%	%	%	%	%	%
■ 전 체	(703)	20.9	31.5	52.3	22.9	9.7	32.6	15.1	100.0
□ 성 별									
남 자	(347)	23.4	33.6	57.0	23.3	10.9	34.2	8.8	100.0
여 자	(356)	18.4	29.4	47.8	22.5	8.5	31.0	21.2	100.0
□ 연 령 별									
20 대	(193)	26.2	39.0	65.2	21.7	5.8	27.6	7.2	100.0
30 대	(193)	27.8	35.5	63.3	22.4	6.1	28.6	8.1	100.0
40 대	(132)	16.1	30.6	46.7	30.1	9.5	39.6	13.7	100.0
50 대 이 상	(185)	11.4	20.1	31.5	19.5	17.6	37.0	31.5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10.5	19.1	29.7	22.1	14.0	36.1	34.3	100.0
고 졸	(286)	20.7	30.9	51.6	24.5	10.9	35.5	12.9	100.0
전 문 대 졸	(50)	19.3	46.0	65.3	22.9	8.7	31.6	3.0	100.0
대 졸 이 상	(223)	28.0	37.0	65.0	21.3	5.6	26.9	8.1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3.6	17.0	20.6	23.5	10.1	33.6	45.8	100.0
자영업/ 사업	(71)	21.3	32.0	53.3	24.3	16.6	40.8	5.9	100.0
생산 / 기술	(78)	25.2	27.0	52.2	24.3	13.9	38.2	9.6	100.0
사무/ 전문직	(93)	23.6	43.8	67.4	24.3	2.7	27.0	5.7	100.0
공 무 원	(37)	26.8	19.8	46.7	33.5	7.0	40.5	12.9	100.0
학 생	(65)	32.8	44.5	77.3	17.1	3.2	20.3	2.4	100.0
주 부	(196)	18.5	28.9	47.4	24.5	8.1	32.6	19.9	100.0
서 비 스 업	(53)	25.7	33.8	59.5	16.2	12.0	28.2	12.3	100.0
무직 / 기타	(61)	9.8	29.0	38.9	17.7	18.3	36.1	25.0	100.0
□ 광 역 별									
서 울	(164)	29.6	28.8	58.3	22.8	9.2	32.0	9.7	100.0
부산/경남 권	(120)	11.3	33.5	44.8	31.1	6.1	37.2	18.0	100.0
대구/경북 권	(82)	18.2	31.6	49.8	20.3	15.2	35.6	14.6	100.0
인천/경기 권	(154)	23.3	33.5	56.8	19.8	9.3	29.1	14.2	100.0
호 남 권	(82)	24.9	28.2	53.1	17.3	9.9	27.2	19.7	100.0
충 청 권	(70)	13.4	37.4	50.8	24.4	5.1	29.5	19.8	100.0
강 원 도	(23)	8.7	27.2	35.9	21.4	27.5	48.9	15.2	100.0
제 주 도	(8)	25.0	12.5	37.5	37.5	12.5	50.0	12.5	100.0

문5) 황장엽 망명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그리고 한보사태로 야기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안기부를 통해 황장엽 망명사건을 서둘러 터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전적으로 동의한다	②대체로 동의한다	①+②	③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⑤잘 모르겠다	전 체
		%	%	%	%	%	%	%	%
■ 전 체	(703)	21.8	32.3	54.0	21.3	10.9	32.2	13.7	100.0
□ 성 별									
남 자	(347)	23.5	30.8	54.3	22.7	13.5	36.2	9.5	100.0
여 자	(356)	20.1	33.7	53.9	19.9	8.4	28.3	17.8	100.0
□ 연 령 별									
20 대	(193)	24.9	39.7	64.6	21.8	4.7	26.5	9.0	100.0
30 대	(193)	30.9	30.0	60.9	23.0	7.8	30.7	8.4	100.0
40 대	(132)	15.7	32.8	48.5	24.5	14.9	39.4	12.1	100.0
50 대 이 상	(185)	13.4	26.5	39.9	16.7	18.0	34.6	25.4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11.9	18.8	30.8	19.6	16.1	35.8	33.5	100.0
고 졸	(286)	22.4	34.9	57.2	22.1	10.5	32.6	10.1	100.0
전 문 대 졸	(50)	20.4	40.2	60.6	28.3	9.3	37.6	1.8	100.0
대 졸 이 상	(223)	27.7	35.8	63.5	19.7	8.5	28.2	8.3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8.6	21.5	30.1	19.2	15.3	34.6	35.3	100.0
자영업/ 사업	(71)	29.2	20.6	49.9	21.8	16.9	38.7	11.5	100.0
생산 / 기술	(78)	24.0	26.7	50.7	20.7	17.6	38.4	10.9	100.0
사무/ 전문직	(93)	26.6	39.0	65.6	25.0	6.8	31.8	2.6	100.0
공 무 원	(37)	23.1	38.0	61.1	21.7	9.7	31.4	7.5	100.0
학 생	(65)	22.8	35.4	58.2	26.2	5.4	31.6	10.2	100.0
주 부	(196)	18.8	34.7	53.6	20.8	9.4	30.2	16.2	100.0
서 비 스 업	(53)	24.6	42.6	67.3	14.2	6.9	21.2	11.6	100.0
무직 / 기타	(61)	17.2	27.7	44.9	19.9	13.4	33.3	21.8	100.0
□ 광 역 별									
서 울	(164)	30.2	30.9	61.1	21.9	10.0	31.9	7.0	100.0
부산/경남 권	(120)	17.8	31.3	49.1	23.4	12.4	35.8	15.1	100.0
대구/경북 권	(82)	21.8	26.4	48.3	24.3	12.7	37.0	14.8	100.0
인천/경기 권	(154)	20.2	33.8	54.0	19.5	10.8	30.3	15.8	100.0
호 남 권	(82)	20.5	38.1	58.6	20.3	5.1	25.4	16.0	100.0
충 청 권	(70)	17.7	37.1	54.7	12.5	13.0	25.5	19.8	100.0
강 원 도	(23)	8.7	33.3	42.0	27.2	18.8	46.0	12.0	100.0
제 주 도	(8)	25.0	.0	25.0	50.0	12.5	62.5	12.5	100.0

안기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지만 인원, 예산, 업무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은 CIA(중앙정보국)과 FBI(연방수사국)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안기부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문6) 귀하는 이러한 안기부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매우 필요하다	②대체로 필요한다	①+②	③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⑤잘 모르겠다	전 체
		%	%	%	%	%	%	%	%
■ 전 체	(703)	43.8	30.4	74.2	9.5	5.1	14.6	11.2	100.0
□ 성 별									
남 자	(347)	44.5	32.5	77.0	10.7	7.3	18.0	5.0	100.0
여 자	(356)	43.0	28.3	71.4	8.3	3.0	11.3	17.4	100.0
□ 연 령 별									
20 대	(193)	57.4	30.7	88.1	7.6	2.9	10.5	1.4	100.0
30 대	(193)	50.4	31.7	82.1	8.0	4.7	12.7	5.2	100.0
40 대	(132)	32.5	37.1	69.5	16.9	7.2	24.1	6.4	100.0
50 대 이 상	(185)	30.7	23.9	54.7	7.5	6.5	14.0	31.3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22.5	21.2	43.7	10.6	8.7	19.3	36.9	100.0
고 졸	(286)	49.3	31.8	81.1	8.1	4.0	12.1	6.8	100.0
전 문 대 졸	(50)	48.4	37.1	85.5	11.2	3.2	14.5	.0	100.0
대 졸 이 상	(223)	49.3	33.0	82.3	10.1	4.7	14.8	2.9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20.9	30.4	51.3	8.7	6.7	15.4	33.3	100.0
자영업/ 사업	(71)	29.6	34.6	64.2	12.4	19.7	32.1	3.7	100.0
생산 / 기술	(78)	45.3	27.4	72.8	11.9	5.8	17.6	9.6	100.0
사무/ 전문직	(93)	50.4	32.5	83.0	9.5	2.7	12.2	4.8	100.0
공 무 원	(37)	38.0	41.0	79.0	5.0	7.9	12.9	8.1	100.0
학 생	(65)	64.0	29.1	93.1	5.4	1.5	6.9	.0	100.0
주 부	(196)	42.8	28.5	71.4	11.0	1.7	12.7	16.0	100.0
서 비 스 업	(53)	55.9	27.7	83.6	7.7	3.2	10.9	5.5	100.0
무직 / 기타	(61)	39.6	29.4	69.0	7.3	4.9	12.2	18.8	100.0
□ 광 역 별									
서 울	(164)	48.4	28.3	76.7	13.4	4.9	18.3	5.0	100.0
부산/경남 권	(120)	39.8	33.9	73.7	7.2	3.1	10.3	16.0	100.0
대구/경북 권	(82)	37.9	32.1	70.0	14.1	4.1	18.2	11.8	100.0
인천/경기 권	(154)	51.3	23.8	75.1	6.6	6.9	13.4	11.5	100.0
호 남 권	(82)	40.6	31.3	71.8	8.3	5.1	13.4	14.8	100.0
충 청 권	(70)	45.0	28.8	73.9	10.5	2.3	12.8	13.4	100.0
강 원 도	(23)	7.6	68.1	75.7	.0	16.7	16.7	7.6	100.0
제 주 도	(8)	50.0	25.0	75.0	.0	12.5	12.5	12.5	100.0

문6-1) 어떤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Y6R1					전 체
		①예산과 업무의 공개	②정보권과 수사권 분리	③권한의 축소	④정권으로부터 분리독립	⑥잘 모르겠다	%
		%	%	%	%	%	
■ 전 체	(521)	17.3	20.2	12.0	46.4	4.2	100.0
□ 성 별							
남 자	(267)	16.3	18.9	12.8	49.9	2.0	100.0
여 자	(254)	18.3	21.5	11.1	42.6	6.4	100.0
□ 연 령 별							
20 대	(170)	17.8	19.3	9.9	51.7	1.2	100.0
30 대	(158)	15.5	23.3	11.3	46.7	3.3	100.0
40 대	(92)	17.1	15.8	14.5	47.5	5.1	100.0
50 대 이 상	(101)	19.5	20.8	14.2	35.9	9.6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63)	22.9	22.1	16.2	31.6	7.1	100.0
고 졸	(232)	17.3	21.9	8.6	46.7	5.5	100.0
전 문 대 졸	(42)	23.0	22.2	14.1	38.6	2.1	100.0
대 졸 이 상	(184)	14.0	17.0	14.2	52.9	2.0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24)	17.3	17.2	17.0	41.8	6.6	100.0
자영업/ 사업	(46)	16.5	27.7	12.1	43.7	.0	100.0
생산 / 기술	(57)	22.8	19.2	8.1	48.0	1.9	100.0
사무/ 전문직	(77)	17.1	20.7	10.8	51.5	.0	100.0
공 무 원	(29)	5.6	25.5	16.2	46.7	6.0	100.0
학 생	(61)	15.2	15.5	14.8	52.6	1.8	100.0
주 부	(140)	18.9	18.7	11.5	41.8	9.1	100.0
서 비 스 업	(44)	19.1	24.1	9.6	43.0	4.1	100.0
무직 / 기타	(42)	15.5	18.8	13.3	48.7	3.7	100.0
□ 광 역 별							
서 울	(126)	16.1	24.9	12.6	42.8	3.7	100.0
부산/경남 권	(88)	25.4	20.6	9.3	38.7	6.1	100.0
대구/경북 권	(57)	20.8	16.2	12.8	46.6	3.5	100.0
인천/경기 권	(116)	12.3	24.7	9.9	47.6	5.4	100.0
호 남 권	(59)	19.4	11.6	7.1	60.6	1.4	100.0
충 청 권	(52)	13.8	14.4	20.0	48.2	3.5	100.0
강 원 도	(17)	10.0	15.3	17.2	53.1	4.3	100.0
제 주 도	(6)	16.7	16.7	33.3	33.3	.0	100.0

문7) 귀하는 안기부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례수	Y7				전 체
		①친근한 느낌이 든다	②두려운 느낌이 든다	③특별한 느낌이 없다	⑥잘 모르겠다	%
		%	%	%	%	
■ 전 체	(703)	3.3	61.0	31.8	3.9	100.0
□ 성 별						
남 자	(347)	4.3	55.7	38.5	1.4	100.0
여 자	(356)	2.3	66.2	25.2	6.3	100.0
□ 연 령 별						
20 대	(193)	2.8	62.2	33.7	1.3	100.0
30 대	(193)	2.1	70.2	26.3	1.4	100.0
40 대	(132)	4.6	63.1	31.6	.7	100.0
50 대 이 상	(185)	4.0	48.8	35.7	11.4	100.0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4)	4.8	51.5	30.4	13.3	100.0
고 졸	(286)	2.1	67.7	28.8	1.3	100.0
전 문 대 졸	(50)	4.9	57.5	37.6	.0	100.0
대 졸 이 상	(223)	3.4	59.4	35.2	2.0	100.0
□ 직 업 별						
농축/임/어업	(47)	1.6	54.6	24.0	19.8	100.0
자영업/ 사업	(71)	4.2	57.5	37.0	1.3	100.0
생산 / 기술	(78)	7.0	51.0	42.0	.0	100.0
사무/ 전문직	(93)	5.4	57.9	33.7	3.0	100.0
공 무 원	(37)	2.0	61.8	36.1	.0	100.0
학 생	(65)	.0	63.8	35.0	1.2	100.0
주 부	(196)	1.6	69.8	21.7	6.9	100.0
서 비 스 업	(53)	1.3	65.2	33.5	.0	100.0
무직 / 기타	(61)	6.8	53.6	39.6	.0	100.0
□ 광 역 별						
서 울	(164)	2.1	67.4	28.8	1.8	100.0
부산/경남 권	(120)	4.7	52.7	34.8	7.8	100.0
대구/경북 권	(82)	3.7	60.0	35.2	1.1	100.0
인천/경기 권	(154)	2.8	60.4	31.7	5.1	100.0
호 남 권	(82)	1.1	62.3	30.7	6.0	100.0
충 청 권	(70)	6.0	62.3	29.4	2.2	100.0
강 원 도	(23)	6.5	67.4	26.1	.0	100.0
제 주 도	(8)	.0	37.5	62.5	.0	100.0